

# '전국돌문화축제 돌돌잔치' 개최

26~27일, 체험형 문화 축제·채석장 직접 방문 체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

익산 석재의 우수함을 알리는 전국 돌문화축제가 '돌돌잔치'로 새롭게 태어난다.

익산시는 오는 26~27일 익산석제품 전시홍보관 일대와 황등 채석장에서 '2024 전국돌문화축제 돌돌잔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3대 화강암 중 최고로 손꼽히는 익산석은 마한과 백제부터 현대까지 우리 문화 유산을 만든 자랑스러운 자원이다. 세계문화유산인 미륵사지 석탑이 바로 익산의 대표적인 석제품 유물이다.

우수한 품질의 자원 덕분에 자연스럽게 석재 기술이 발달한 익산은 국내 석재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석재 산업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역사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익산은 대규모 채석장이 있는 황등면에 석제품전시홍보관을 조성해 돌문화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석제품전시홍보관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돌돌잔치는 석재와 예술을 결합한 체험형 문화 축제로 마련됐다. 석재 산업 관계자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석재 문화가 생소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문턱을 낮추는 행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특히 익산석을 의인화한 '스톤 프렌즈'가 탄생해 눈길을 끈다. 스톤 프렌즈 팀을 이끄는 리더 '백톤이(100t)'를 필두로 캐릭터들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알기 쉽게 소개하며 전국 날들이



익산시는 오는 26~27일 익산석제품전시홍보관 일대와 황등 채석장에서 '2024 전국돌문화축제 돌돌잔치'를 개최한다.

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채석장을 직접 방문해 익산석 채굴 공간과 채굴에 사용되는 중장비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나만의 안전모 꾸미기와 버블쇼, 중장비 모래체험, 소원탑 돌맹이, 선물 증정, 개막 축하 공연도 준비돼 있다.

돌을 깎아 만든 스톤 프렌즈 조형물과 황등 채석장 위를 이슬이슬하게 건너는 트리아트 구역은 기념사진을 찍

을 수 있는 장소로 인기를 얻을 전망이다.

익산석을 예술과 함께 경험해 보는 미디어아트 전시는 오는 11월 3일까지 축제가 끝난 후에도 만나볼 수 있다. 매력적인 미디어아트쇼와 스톤프렌즈 관련 애니메이션을 통해 익산 석재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행사 기간에는 전국을 대표하는 석공예인들의 석조작품을 한 자리에 볼 수 있는 '익산 국제 돌문화 비엔날레'가 함께 열려 우수한 석공인들의 예술 작품을 관람해 볼 수 있다.

축제에 앞서 다양한 사전 이벤트도 이어졌다. 백톤이의 인스타그램 계정(@stonefriends\_100t)을 팔로우한 뒤 관련 게시물에 '참여완료' 댓글을 달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진행됐다.

또 자신의 반려돌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뒤 '#돌돌잔치 #스톤프렌즈 #반려돌자랑' 해시태그를 달면 선정을 통해 스톤프렌즈 모자와 축제 음식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익산시장은 "오랜 세월 탁월함을 인정받아 온 석재도시 익산의 우수한 자원과 기술을 널리 알리는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며 "마한과 백제 시대를 꽃피운 익산의 뿌리 깊은 석재 문화의 매력에 흠뻑 빠져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2024년 군산시 여성한마음대회' 성료

군산시 여성들의 화합·역량결집의 장 마련

군산시는 22일 월명체육관에서 '2024년 군산시 여성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시가 주최하고 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여성 한마음대회는 여성들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군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운동을 다짐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이다. 시에서는 2002년부터 코로나 시국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장구 난타 공연과 군산시 여성단체협의회 단체기 입증을 시작으로 1부 행사가 진행되었고,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이 이어졌다.

시장 표창 민간인 부문은 △임옥순 한국부인회군산지부 부회장 △왕소연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군산지부 이사 △안영화 군산시 여약사회 총무 △안진례 군산시 여성자원봉사회 회원 △전화영 패드름맘 군산지회 회원, 공무원 부문은 △고수민 미성동행정복지



센터 직원이 수상했다.

이어진 2부 행사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명랑운동회를 통해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2024년 군산시 여성한마음대회를 통해 여성의 일체감을 높이고 여성의 잠재된 역량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 기반 구축에 한층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군산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제6기 군산시 외국어 통역봉사자 추가 모집

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우즈베크어 등 외국어 구사자 대상

군산시가 22일부터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크어 등 외국어 구사자를 대상으로 제6기 군산시 외국어 통역봉사자를 추가 모집한다.

시는 올해 4월 영어·중국어·일본어 통역봉사자 34명을 포함하여 총 38명을 제6기 외국어 통역봉사자로 위촉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모집은 영어·중국어·일본어를 제외한 기타 외국어 구사자가 지원 대상이다.

19세 이상 군산시 거주자로서 한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한 이주 여성 및 체류 외국인 또는 외국어 구사 능력이 우수하여 통역 및 상담이 가능하면 지

원할 수 있다.

면접심사일은 11월 7일이다.

이번에 선발되면 본인의 우수한 한국어·외국어 능력을 활용하여 군산시와 관내 기업의 국제행사 및 해외 비즈니스 교류를 돕게 된다. 활동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이다.

제6기 군산시 외국어 통역봉사자 추가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누리집(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통역 봉사 서비스가 필요한 단체나 기업은 군산시 기획예산과(☎063-454-2625)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민들의 빛나는 아이디어 찾습니다

'2024년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내달 11일까지

익산시가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익산시는 '2024년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달 11일까지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인구·경제 △문화·관광 △복지·교육 △공무원제안 등으로 익산 시정 발전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기획예산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kj6334@korea.kr)으로 11월 11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모 참가자 중 20여 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는 12월 중 발표하고, 창안 등급에 따라 우수 제안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신청서류 서식과 제출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기획예산과(063-859-5166)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군산시, 2024 총무훈련 실시... 28일부터 시작

군산시가 10월 28일부터 총무훈련을 실시한다. 총무훈련은 전시 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비상사태 대비 국가차원의 동원 태세를 점검하는 지역단위 종합훈련으로 3년마다 실시한다.

1일 차인 28일에는 전시종합상황실을 편성·운영하여 전시상황을 가정한 상황 조치 연습을 훈련을 시작하게 된다. 이를 통해 총무계획 및 비축물자 점검 등을 통해 정부 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 국민 생활 안정이라는 총무 3대 기능 수행 능력을 익히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훈련 2~3일 차에는 공군 38전대 및 군산해양경찰서와 기술인력 동원 훈련이 실시된다. 전시 동원 절차를 익히고 동원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으로 동원 대상자는 특정 자격·면허를 소지한 기술 인력 19명이다.

훈련대상자에게 훈련통지서를 교부하고 군부대 및 군산해경에 해당 인력을 인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진행한다. 시는 훈련기간 중 기술 인력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응소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황등도서관

공예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 황등도서관이 공예 특성화 프로그램 '우리를 위한 친환경 공예'를 운영한다.

"우리를 위한 친환경 공예"는 친환경을 주제로 11월 8, 15, 22일 오전 10시에 총 3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주요 활동은 양말목 만들기, 커피파 화분 만들기, 바다 유리그림책 만들기 등 쉽게 버려지는 물건을 재활용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예품을 만들어 본다.

신청은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lib.iksan.go.kr)에서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황등도서관(063-859-37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전국 규모 대회 유치... 지역 경제 '활력'

10월 24~11월 2일, 전국중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11월 5~10일, 코리아 마스터즈 국제 배드민턴 선수권

익산시가 전국 규모 대회의 잇단 유치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시는 그간 육상, 펜싱, 철인3종 등 각종 종목에 이어 배드민턴 대회까지 개최하며 명품 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2일 익산시에 따르면 국내 전국대회인 전국중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와 세계적인 배드민턴 대회인 코리아 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연달아 개최된다.

'전국중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대학·일반)'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익산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며 국내 대학·일반 엘리트 선수단이 참여한다. 이번 대회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유튜브 채널로 중계될 예정이다.

이어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국제대회인 '코리아 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진행된다.

코리아 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는 미국, 스웨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약 30개국 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대회이다.

대회 관람을 희망하는 경우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 후 현장 관람이 가능하고 온라인 중계도 진행된다. 모든 경기를 세계배드민턴 연맹 공식 중계 채널 'bwf tv'에서 중계하고, 대회의 중반부인 9, 10일 경기는 TV채널 스포티브(spor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민들에게 세계정상급 경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의 생중계로 익산시를 알리기에 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익산시가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종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